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대학 복음화의 기틀 다질

미래 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 생활 안내

우리 교회가 한국대학생선교회(CCC)와 함께 준비해오던 “제3회 미래 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 생활 안내”가 드디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다.

“비전 2000, 대학인의 가슴에 새로운 소망을”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집회에는 경인 지역의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학부 모듈을 초청하고, 강의, 찬양, 간증 등으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이한빈 전 부총리, 정근모 전 과기처 장관, 이종윤 위임목사, 이원설 한남대 총장, 이영덕 서울대 교수, 김준곤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가 수고하게 된다. 또 가수 윤형주, 서수남, 조하문 씨와, 크로스 로드의 특별 순서도 마련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 대학은 각종 이데올로기의 범람과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의 만연 등 세속화로 인하여 고질적인 열병

을 앓고 있다. 따라서 이 집회는 이러한 대학가에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가해 줄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자칫하면, 가치관의 혼란에 빠질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바른 대학 생활의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이 집회에 대학생 자녀를 둔 충현의 성도들과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대학 복음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제2회 목회자세미나 1,004명 참석 11일 오후 2시에 개강 예배 드려

제2회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1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제1학기 개강 예배를 드림으로써 2년간의 긴 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개강 예배 때는 이종윤 위임목사의 해외 출장으로 협동목사인 박형용 목사가 설교를 하였다.

이번 학기는 4월 15일까지 앞으로 10주 동안 “성경적 교회 성장 원리”에 대한 이종윤 위임목사의 강의와 이상훈 교수 등의 “교회 성장과 갱신”을 주제로 한 강의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은 첫날 등록한 인원이 8백여 명, 출석 인원이 천 4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2, 3주 동안 계속해서 등록을 받게 되면 수강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종윤 위임목사 다락방장 직접 교육키로

우리 교회는 교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정기 당회에서 교구 모임과 다락방장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운영 계획은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교구 모임은 매월 둘째, 넷째 주일 IV부 예배 후 회집되며, 다락방장 교육은 매주 수요일 I, II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된다. 격주제로 모이는 교구 모임 시간에는 교회와 교구를 위해 기도회를 가진 후, 행정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다락방장 교육 때는 이종윤 위임목사가 강사로 수고하게 된다.

충현유치원 18일에 졸업 및 수료식

우리 교회 부설 충현유치원은 내일(2월 18일) 오전11시에 91학년도 졸업 및 수료식을 갖는다.

충현유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 나라의 일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원훈 아래, 원아들을 교육해왔다.

금년에도 원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교육하며, 주변 세계에 대한 지식과 과학적 사고 능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어린이로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91학년도 입학식은 3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청지기 수련회 추가 훈련 20일 수요일 예배 후에 갈릴리홀에서

오는 20일 수요일 I, II부 예배를 마친 후, 갈릴리홀에서 우리 교회는 청지기 수련회 미수료자들을 위한 추가 수련회를 실시한다.

이날 추가 청지기 수련회를 갖게 된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구일꾼,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남녀 전도회 임원원 가운데, 수료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다. 청지기 수련회에서 이종윤 위임목사의 91년도 목회 방침에 대한 설명이 있고, 각 직분에 따라 어



떤 자세로 봉사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진실로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직분자라면 이 훈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민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M군에게,

자네가 벌써 대학을 졸업한다니 세월의 빠름을 또 한번 절감하였네. 이렇게 빠른 세월을 아껴서 보람 있고 값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인생을 설계해야 할 것일세.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허송하고 한 맺힌 후회를 하지만 가버린 시간은 보상해 줄 사람도, 보상받을 방법도 없는 것일세. 무엇보다도 바른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하네. 믿음으로 전진하되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목표를 이루도록 하네. 모든 일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구원의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네. 가능하다면 가던 길을 바꾸지 말고 한 우물을 파는 인내의 사람이 되고, 손에 쥘 것을 잡은 자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하네.

성경 말씀을 발의 등불로 삼고 기도 소리가 심장의 고동 소리가 되게 하여야 하네. 교회 생활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명 의식과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역사 의식을 가진 지성인이 되어야 하네.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관(觀)을 갖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앙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일세. 이제부터 몰아닥칠 모든 풍진과 거친 세파를 의연하게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줄 것을 기도하네.

2. 17

이 중 윤 목사

기도의 어머니 권사회 수요일마다 정기 기도회 가져

우리 교회 권사회(회장 전순자 권사)는 매주 수요일 II부 예배가 끝나면 지회별로 충현기도원으로 올라가 기도회를 갖는다.

523명의 우리 교회 시무 권사들은 교구별로 4개 지회로 나누어 정기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에는 지회별 기도 순서에 따라 제2지회(지회장 김상순 권사)가 기도원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2달별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본받아 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 권사들은 1, 2월에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모범적인 교회로서 교육, 선교, 구제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위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선교사, 장로들을 위하여, 각 기관과 모든 행사들을 위하여, 모든 건축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이 나라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91년도 첫 정기 제직회 3일 개최

우리 교회는 금년 들어 첫번째 정기제직회를 지난 3일 본당에서 개최하였다.

당회장 이종윤 위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제직회에서는 각 부서의 임원이 소개되었고, 모든 회무를 심의하였다.

특히 이 시간에는 모든 제직들이 격월제로 회집되는 정기 제직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제직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자고 결의

하였다.

성도의 교제

이학봉·정정희 집사(제8교구) 파주군 조리면에 승리샤링공업사 개업(연락처 353-4660, 0348-944-5886)

임정택·이인향 집사(제11교구) 암사동에 요식업소 남해 개업(연락처 482-0100)



성경 강해

이 종 운 목사

예수님의 은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요 11:54~57)

11장을 자세히 읽어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등장 인물들을 살펴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1. 백성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결정한 후에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였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화제거리로 떠올랐습니다. 56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기를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뜻보다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훌륭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

다. 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38년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요 5)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요 9),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는 이유로 그분을 정죄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만을 생각했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죽은 율법만을 고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 당시 교회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 그것은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 행위는 오히려 냄새나고 더러워서 내다버려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박해진 인간의 심경, 좁아질 대로 좁아진 편견, 아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양심,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는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매우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고 인내하는 생활

이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떡을 얻어 먹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명고침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칭찬하였으며, 죽은 자를 살렸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단지 흥미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 내시는 기적을 행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유하셨습니다(요 11:54).

에브라임은 사마리아와 예리고의 중간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이곳에 은둔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55절을 보면, 유월절이 다가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워 오면, 명절을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의례히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예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야라고 믿었다면 모여서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척만 하였고, 정작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하면 멋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출애굽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모면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장차 피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종교 의식, 예수 정신이 빠진 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 지도자

본문 57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교회에 잡혀 하라 명령하였음이라”(요 11:57)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지도자들의 이러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많은 유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는 지혜를 배워야

태도, 이런 포습을 저 옛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애, 형식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

첫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53절과 54절에 나타난 대로 저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자 “그러므로” 다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습니

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 뿐만 아니라, 악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요 2:24, 25).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기다리셨습니다.

신학자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17절을

일을 해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4. 하나님의 백성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릴 것을 빨리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가족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

다(마 4:18~22).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화병을 하였고,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버리는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먼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적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32, 33)

■ 체코에서 온 편지



유럽 교회를 감화시킨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운동

친애하는 이 목사님,
먼저 교회의 주 되시고 전세계에 걸쳐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담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서울에 계신 목사님과 귀 교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 교회를 통하여 세계에 새로운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고, 복음 전도가 더욱 열렬하게 된 것과 그리스도 교회의 갱신을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충현교회에서 얻은 온갖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동구권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시간과 수고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사랑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초청하도록 결정해 주시고 김치(KIMCHI) 세미나 참여를 가능케 해주신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체코에서 간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돌봐 주신 마일수 목사 부부와 우리의 한국 체류를 가능하도록 도와 주신 교회의 헌신적인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얻은 최대의 경험은 새벽 기도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와 우리 체코인을 담당했던 귀

교회의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충현교회 성도들은 우리 국민을 잘 아시기도, 또 가까이 느껴지시지도 않으실 텐데, 우리 나라의 교회와 국민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위한 기도에도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셨습니다.

귀국한 이후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회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기도의 열매는 많은 교회에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신 충현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귀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귀 교회에서 불 붙인 기도의 불씨가 전세계로 사랑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지구촌 곳곳으로 즐거움과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나라를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스타니슬라브 카즈마르치크 올림

지난해 여름, 무심코 서신에 담았던 작은 소망이 주일에 선물 꾸러미로 이루어졌을 때, 이 웬 벼랑 끝 은혜인가 싶어 당황함이 앞섰던 기억이 난다.

홍해작전으로 온 성도가 총력으로 진군하는 가운데 펼쳐진 "나눔의 센터"에 어느 교인의 가정에서나 한 권쯤 여분이 있을 성경책 중 낡은 것이라도 평소에 무척 읽고 싶던 톰슨 주석성경을 내놓을 분이 있을까 싶어 어느 전도사님께 서신으로 말씀드렸더니 뜻밖에도 인쇄 내용이 생생한 새 책을 주셨던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알고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석이 잔뜩 밀려 마음만 조급하다.

실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라고 읊은 시인의 시심(詩心)이 생생히 전달되면서 때론 감동으로 전율이 일곤 한다. 복음에 관한 이해가 깊어 갈수록 그 진리의 기쁨과 감동을 남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끓는다.

하나 어려서 실청한 뒤로 사회생활과 대인 교제가 거의 단절된 가운데 십대를 보냈었던 내가 못듣는다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의식이 유다론 이 사회에서 의사 소통의 수단이 글 뿐인 나의

리스트도, 4. 끝내 소명을 거절한 자에 대한 노아와 롯 시대의 심판을 예표로 삼은 경고 등을 대강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서신을 통한 복음 전도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파종이요 내게 맡겨진 달란트라고 자각하게 된 것이다.

종교적인 면에서 현대인들의 특징은 신적 존재와 경전을 신화쯤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 역사나 과학 등 학문적인 성격을 띠면 무조건 신봉한다. 영혼은 믿지 않지만 심령 과학이라 하면 믿는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겐 역사적인 사실인 이스라엘의 기원과 홍망 성세,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시는

독자의 난

내게 주신 달란트

배 병 호 성도
(에바다부 성인반)

동안 개역성경을 적지 아니 읽었으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디던 내게 주석성경은 활짝 열린 좁은 문으로서 나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시키고 있다.

믿음이 연약하던 지난 시절,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기 그지 없던 마음의 바벨탑이 말씀의 날선 검 앞에 여지없이 쪼개지고 허물어지면서 옛 사람 때의 언행이 회상될 때마다 한 없이 부끄러웠다. 그 부끄러움에 홀로 낮을 불히면서 가일층 낮추어져 가는 자아를 느낀다.

생존 차원의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하루에 한 두 장밖에 성경을 공부할 수 없지만 읽을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에 매료되면서 어서 읽고 싶은 말씀과 해당

처지로, 그 누구를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전도를 하려 해도 그 방법이 문제였다. 그래서 전도는 나와 무관한 능력 밖의 일로 치부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지각을 여시고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깨우쳐 주시려고 톰슨 주석성경을 주셨나 보다.

최근에 한 농아인 형제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한 번씩 내 차례에 걸쳐 긴 편지를 통해 전도하였다. 1. 선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기원과 역사, 2.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계시인 성경과 그 권위, 3. 화목 제물로 제시된 예수 그

전능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첫 단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구약성경은 바로 그런 점에서 필요한 것 같다.

이제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두 골씩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하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척,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편지를 쓰는 일이 기쁨으로 수행할 과제로 남았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라고 하실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모두 관리인



오진국 장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 수익을 올리고 재산을 늘리는 데만 정신을 쏟는 관리인은 계산상으로는 흑자이나, 실제적으로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출에 대한 관리는 물론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관리도 아울러 하지 않으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게 된다.

충현교회가 새 성전을 지어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9년째로 접어들다. 온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지은 새 성전을 오래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해나가는 관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장로로서, 이 성전을 지을 당시 건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전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새성전 시대 7년째를 맞이하는 이때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실들이 피부에 와 닿는다.

주일이면 소석관의 각 방을 돌아본다. 여러 부서가 다목적실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방이 많지 않다. 커튼이 열려 있는 창문, 닫혀 있는 창문이 예배실을 어수선하게 하는 느낌을 주고, 어떤 방에는 의자가 가로로 놓여 있고 어떤 방에는 세로로 놓여 있어 통일성이 없다. 오전 10시가 넘으면 벌써 차츰차츰 비려지는 쓰레기로 화장실 주변이 불결해지기 시작한다. 주보 낡은 것들이 복도의 책상 위에 널려 있어 어지러움은 한층 더하다. 그래서 어지럽히는 자가 있듯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정리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주님 사랑은 헌금 많이 내는 것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구제 많이 하는 것으로, 성수주일 잘 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각 사람이 관리인이 되어서 내 집처럼 성전을 관리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세계에서 몇 제 가며,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웅장

하고 아름답다고 예찬을 받는 성전이 우리의 무관심과 물이해로 헐려지고 깎여지고 어지럽혀지는 데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껴야 할 것이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어김없이 교회의 마당을 쓸고 종이를 줍는 노부부를 할 일 없어 청소로 소일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우리 모두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닦도록 하자. 교회의 모든 면적 중 한 평은 나의 관리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관심과 사랑으로 닦고 보전해 나가자.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다.

절프전쟁으로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하자고 자동차 10부제가 운영되고 한 집 한 등 끄기가 실시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 선교관 엘리베이터가 평일에는 가동을 않고 있다. 예배실이나 각 방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성도는 꼭 소등을 하고 나오는 습관이 아쉽다. 내적으로 말씀이 풍성함과 아울러 외적으로 아름답고 청결한 성전을 가꾸어 나가는 일에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정성이 기울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호 세기통은 오태희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 탐방 - 마리아전도회 제12지회

교제 통해 성도의 빛 발하는 전도회

교회내의 여러 부서들이 주님의 지체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바빠 움직이는 곳은 뭘니뭘니해도 전도회일 것이다. 이번 주에는 마리아전도회의 제12지회 활동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이현숙 집사님이 회장, 장선옥 집사님이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마리아 12지회는 38명의 임직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46명의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여러 전도회 중에 가장 젊은층인 30대가 모인 전도회라서 활동도 의욕적이고 무척 활발하다. 광전교회를 지원하고 있고 지하철선교회를 도와 회원들이 역삼역에서 전도지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가입하는 신입 회원들에게는 회원 가입증에 기도 제목을 기입하게 해서 회원들간에 기도를 하고 있으며, 지옥부에서는 평소 시상하는 성경암송상, 성경 다독상 이외에도 올해에는 큐티(QT: 경건의 삶) 상을

신설하여서 회원들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91년도 회장으로 봉사하실 이현숙 집사님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많다고 겸손해 하시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전도의 의미를 되살려 올 한 해 마리아전도회 제12지회의 살림을 꾸려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리고 전도회는 무엇보다도 회원들간의 친목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백마디의 말로 하는 전도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인들간의 사랑의 교제를 보여 줌으로써 전도하고 싶다고 하셨다.

마리아전도회는 회원들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아직 자녀들의 나이가 어려서 제12지회 회원들이 모이기 힘들지만 회원들이 더 무도 주님의 일에 적극적이어서 무척 마음이 든든하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임직원들의 가정이 완전하 복음화되지 않아서 충현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

3일에 새가족환영회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3일 갈릴리홀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가졌다.

새가족부는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 환영회 때는 우리 교회를 가장 인상 깊게 알릴 수 있는 흥해작전 비디오를 상영하였으며, 교



구 담당 교역자와 교구장, 기타 교구 일꾼들을 소개하였고, 새가족들과 대화하는 순서도 가졌다.

〈고등부 특강 요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릇되기 쉬운 관념

(이 글은 지난 2월 10일에 있었던 고등부 특강 시간에 김형모 전도사가 "자신을 격려하자"라는 주제로 강의한 내용 가운데 그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강사 김형모 전도사
(“십대들의 쑥지” 발행인)

모든 청소년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격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부모들을 하나의 감시자, 혹은 간섭자로 인식한다. 따라서 부모들의 말씀을 모두 권소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가출을 하는 등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부모와 갈등을 겪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표현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언어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들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부모들과 갈등을 겪는 또 다른 원인은 자녀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한다거나 과거의 잘못까지 들추어 내어 야단을 치는 행위는 자녀들의 성격을 왜곡되게 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말에는 “가내에 놓는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즉 교육이란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점을 꺼내 놓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자녀들은 자신에 대하여 긍지를 갖게 된다.

또한 공부만을 강요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압박감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사춘기에는 청소년이 새로운 것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을 느낄 때이다. 이성애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많은 호기심을 느끼고 있는 반면, 그런 것들을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상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학부모들과 10분 정

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 하지 못하여 한 달, 두 달, 길게는 일 년 이상을 풀지 못한 숙제로 간직하고 끙끙 앓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부모들은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의 입장에서 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스스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갈 수 있게 된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반항은 자기 스스로 서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기성 세대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모습을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보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걸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뿐이다.

한다락방

제 8 과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

본문: 출 19:2

찬송: 186, 351

본문 연구

1.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국가를 조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통치에 필요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데는 그분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그들을 통치하시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럼 그의 소유된 백성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거룩한 예배(레위기 1장~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의 예배(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마다 그에 합당한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하나님과의 사귄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제물

희생 제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며 짐승의 희생에서 알 수 있듯이, 흘려야 할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

가와 그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를 통해 드러진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며 이 제사 제도와 제물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3.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제사와 의식은 죄의 타락을 제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나타난 모든 의례와 규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었기에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매년 죄를 용서받았고 곧 이것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문답

1. 레위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레 19:2)?
2.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히 9:23~28)?
3. 참된 거룩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히 10:16)?

토의

1.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2. 지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결심한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3.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체험한 은혜를 같이 나누어 봅시다.

기도

1. 구속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미래 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 생활 안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 다락방의 연약한 가정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